5 알고 싶어요

◆ 글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찾아봅시다.

평소에 우리 몸에서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떻게 될까?

딸꾹질은 왜 할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왜 군침이 돌까?

코딱지는 왜 생기지?

땀은 왜 나는 걸까?

?

땀이 송송

엄마가 맛있는 국수를 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빨개지며 머리에도 얼굴에도 땀이 송송 맺힙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공을 차고 노니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여름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에 송알송알 땀방울이 맺힙니다.

머릿속부터 턱 밑으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날씨가 더우니 땀이 납니다.

땀방울 맛을 보니 소금처럼 짭짤한 맛이 납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살갗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잘 씻지 않으면 꼬릿꼬릿한 냄새도 난답니다.

땀은 왜 나는 걸까요?

운동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날씨가 더우면 몸이 더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열을 내리려고 땀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몸 밖으로 나온 땀은 공기 속으로 날아가면서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 보세요.

땀이 마르면서 뜨거운 열이 가라앉을 겁니다.

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땀은 우리가 마신 물로 만들어집니다.

물이 몸속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피와 살을 이루고, 다시 몸 밖으로 나오지요.

대부분 오줌으로 나오고 때로는 땀이나 눈물로 나옵니다.

땀은 피부 아래의 땀샘에서 만들어지는데 소금기가 살짝 있어서 짠맛이 납니다.

1 「땀이 송송」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땀이 날 때는 언제인가요?

2 땀이 마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3 몸속의 물은 몸 밖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2 「땀이 송송」을 읽고 땀이 나는 까닭을 말해 봅시다.

땀은 왜 나는 걸까요?

3 보기 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 햇볕 햇빛

- [ ][ ] 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다.
- 오후가 되니 [ ][ ] 이 강해서 모래밭이 뜨거워졌다.

4 '땀'에 대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찾아 써 봅시다.

- 땀은 소금처럼 짭짤한 맛이 납니다.
-
-
-

5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써 봅시다.

혀를 내밀고 열을 내보내는 개

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더운 여름에 혀를 길게 내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예요.

개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데다, 사람처럼 땀을 밖으로 내보내는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서 몸의 열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혀를 내밀어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진흙으로 목욕하는 돼지

돼지도 무더위를 식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진흙으로 목욕하며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진흙 속에 있는 물기가 태양열을 받아 공기 속으로 날아가면서 돼지 몸의 열도 함께 가져가요. 돼지 외에도 코뿔소, 하마, 코끼리가 진흙 목욕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요. 또 진흙을 몸에 묻히면 햇빛을 막는 효과까지 볼 수 있지요. 또 동물들은 피부에 생긴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진흙 목욕을 하기도 한답니다.

배움 다지기

-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보았나요?
- 글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찾아보았나요?